

2017. 5. 1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2133-3670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2133-3672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답 당 자

고안자

2133-3676

서울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하는 체계 만든다

- 시, 하루 140톤 이상 발생하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위해 민관협력 상생 모델 마련
- 커피전문점, 재활용업체, 서울시, 시민단체가 역할 분담하는 효율적인 체계 구축
- 커피 찌꺼기와 1회용 컵도 함께 수거하여 경제성 등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확산
- 5월 한 달간 커피브랜드 6개사 62개 매장 시범사업 참여, 6월 중 본 사업 실시
- 향후 무상수거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업체 자율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 협의

-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직장인의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국내 커피소비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 성장하였으며, 2014년 기준 성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커피의 양은 347잔에 이른다.
- 그러나 성장하는 커피시장의 이면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와 1회용 컵 사용량 급증이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만 하루에 140톤에 달할 정도이다.
 - 커피는 원두 중 단지 0.2%만 커피를 내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로 배출된다. 이렇게 배출된 찌꺼기는 그 동안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려져 매립이나 소각 처리 되었다.

- 이렇게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가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퇴비, 사료, 버섯배지, 화분, 판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새롭게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커피찌꺼기는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커피 특유의 향을 갖추고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화분, 점토벽돌 등 생활용품 제작은 물론 친환경 유기농 퇴비로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커피 찌꺼기로 제조한 퇴비는 질소, 인,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종로구 소재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퇴비, 버섯 배지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보완한 자원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5월 한 달 시범사업을 실시 후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국내 최초로 커피찌꺼기와 더불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도 재질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재활용업체인 사회적 기업, 6개 커피전문점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 시범사업에는 이디야, 파스쿠찌, 탐앤탐스, 뽕다방, 카페베네, 커피베이 등 6개 커피 브랜드별로 10여개 매장씩 총 62개 매장이 참여한다. 매장 규모 별 배출량 및 적정 수거횟수,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의 재질별 분리보관 실태 등을 분석하여 6월 중 시행될 본 사업에 반영한다.

- 시범 매장에서는 커피 찌꺼기와 1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컵) 및 컵 부속품(뚜껑, 빨대, 컵홀더 등)과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사업자의 수거 및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 재활용수거 전문업체는 커피 찌꺼기 분리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매장규모에 따라 주 1회 이상 무상 수거하면서 발생량에 따른 수거 횟수 등을 결정하고 수거된 커피 찌꺼기는 퇴비, 버섯배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 시에서는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커피 찌꺼기 퇴비가 도시농업, 공공관리시설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재호 점장(종로5가점 탐앤탐스)는 서울시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면서 매장에서도 종량제봉투 값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1회용 컵 및 부속품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려면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좋은 정책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재활용업체 주양J&Y 조호상 대표는 커피 찌꺼기를 점차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 버섯배지뿐만 아니라 잘만 모아지면 퇴비, 건축용 자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는 등 앞으로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배지 : 버섯을 키우기 위한 영양원으로서 주로 톱밥을 이용해 만들지만, 톱밥을 커피찌꺼기로 대체하여 커피찌꺼기의 남아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 버섯을 키우는 방법이다.

- 6월중 시행될 본 사업은 커피전문점 본사·서울시·재활용 수거업체간 협약을 통해 시행되며, 시민 거버넌스인 ‘서울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 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쓰레기로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가 다양한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1회용품의 재활용이 늘어난다는 것. 또한 참여 매장은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이를 기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본 사업에 6개 브랜드 1,000여개 매장이 참여하게 되면 연간 1,200톤의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되고 1회용 컵 및 부속품 회수량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재활용업체의 무상 수거 처리로 인한 종량제봉투 구매 비용 절감액 (매장당 하루 40kg 발생시 월 3만원)의 일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공익목적에 맞게 기부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간다.
- 시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커피 찌꺼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말농장, 옥상 텃밭 가꾸기, 수목식재 등 다양한 퇴비 사용 수요처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 또한, 가정에서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퇴비, 화분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시도 이를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모델은 커피 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며, 참여 매장의 종량제 봉투 값은 줄이고, 관련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6월 본 사업부터는 서울 전역의 커피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커피 찌꺼기 분리수거 · 재활용

☐ 커피 찌꺼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 분리 수거 ⇒ 수거통을 나눠주고 교체 수거, 매장 안 적재 공간 최소화



○ 커피 찌꺼기 재활용

① 버섯 배지활용	② 생균 퇴비화	③ 커피 캔들 · 화분
폐면+커피찌꺼기 ➔ 중균접종 ➔ 생육	커피찌꺼기+음식물쓰레기+ 미강+복합미생물 ➔ 퇴비	커피 점토 (불순물 없는 100% 커피찌꺼기)
		

♣ 가정에서 커피찌꺼기 활용 퇴비 만들기

1. 스티로폼 박스 등을 준비한다.
2. 커피 찌꺼기와 퇴비 제조용 미생물(시중 판매)을 50:1로 섞는다.
3. 그늘진 곳에 놓고 일주일 정도 뚜껑을 열었다가 닫아 준다.
4. 퇴비가 완성되기까지는 봄, 가을은 3주, 여름엔 2주, 겨울철에는 4주 정도 걸린다.

♣ 커피찌꺼기 활용 화분 만들기

1. 커피 찌꺼기와 식품을 섞은 '커피 점토 분말'을 사용한다.(시중에서 판매)
2. 커피 점토 분말과 물을 1:1로 섞는다.
3.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커피 찌꺼기 및 1회용 컵 분리배출 매뉴얼



시범사업 참여사 로고

 <p>CAFFÉ PASCUCCI</p>	 <p>COFFEE BAY COFFEE & BAKERY</p>
파스쿠찌	커피베이
	
이디야	카페베네
	
백다방	탐앤탐스